

옥상정원·미래교실로 “전남 학교의 변화는 계속된다”

전남교육청, 해남동초 학교공간 혁신사업 완성 ‘공개の日’ 개최 획일적 모습 탈피 배움과 쉼 공존하는 ‘전남형 교육 환경’ 주목

“종종 쓰레기가 눈에 띄던 공간에 생명이 피고, 삭막하기만 했던 마당에 아이들 웃음 소리가 들리니, 이곳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주는 ‘힘’이 무엇인지 옥상정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3일 해남동초등학교의 ‘2023 학교 교육 변화 공개의 날’에서 만난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처럼 입을 모았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선정돼 공간혁신을 추진해 온 해남동초는 학교 후관 야외마당을 배움·생태교육을 펼치는 옥상정원으로 새 단장 하고, 이날 일반에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교직원,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4월 계획 수립부터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공간 중 어떤 곳을 변화시킬지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꾸밀지 기획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은 머리를 맞대 그려본 옥상정원이 실현되는 과정을 선보이는 자리여서,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해남동초 옥상정원의 이름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중심이 돼 아이들을 위한 ‘애(愛)교육’을 펼쳐나가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아를

리에(兒들리愛)’로 정했다. 그 의미처럼 정원 곳곳에는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녹아있다.

복도에서 옥상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면, 초록 잔디가 펼쳐진다. 그 오른쪽으로는 수시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가, 정면으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낙서판이 길게 들어섰다. 곳곳엔 벤치, 캠핑 의자가 놓여 있고 옆 통로로 건너가면 족파, 상추, 허브 등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작은 텃밭이 조성됐다.

옥상정원에서는 텃밭·작은 정원을 활용한 생태 교육 뿐 아니라, 놀이·학예회 공연 연습·동아리 활동, 피크닉 등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곤 담당 교사는 “복도 창문 너머로 쓰레기를 투척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정원을 가꾸고 정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자연 친화적인 수업 공간,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교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를 슬로건 삼아 추진 중인 전남교육청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올해 초 1교, 중 8교, 고 7교, 특 2교 총 33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11월에는 이날 해남동초를 시작으로 신풍초, 전남외고, 순천매산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탁을 향해 일렬종대로 늘어선 책걸상과 특징 없이 단순하기만 한 복도의 풍경은 이제 옛말이 됐음을 실감할 수 있다. 기존 학교의 획일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무한 변신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고흥 포두중학교는 교실 ‘벽’을 허물고 배움과 쉼이 공존하는 미래형 교실을 선보여 공간혁신의 선례로 주목된다.

전교생 41명인 포두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실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는 혁신을 시도했다. 학생 수가 많은 시절에야, 교실 뒤쪽까지 책걸상이 뻗었지만 학급 당 10여 명에 불과한 지금은 오히려 큰 교실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포두중은 교실 한편에 스타디움, 마루방을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 공부하고, 쉬어가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화를 줬다.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창의적인 모둠 활동과 발표회가 가능하고, 통 창 너머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은 작은 쉼을 선사한다. 특히 2학년과 3학년 교실 사이에 필요시 여닫을 수 있는 접이식 문을 설치해, 학년 간



합동 수업이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미래 교실’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학생 맞춤형 공간혁신이 이뤄지면서 분관 1층 모습도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교장실, 교무실이 자리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교실과 도서관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순천왕지초 도서관은 외부와의 연결성·개방성을 고려해 1층에 자리 잡았다.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 독서토론·작가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곡성 삼기초는 복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운동장으로 통하는 개방형 교실로 구성됐다. 탁 트인 유리문은 개방감이 느껴지고, 교

실 뒤쪽으로는 용기종기 모여 놀 수 있는 다락을 마련해 교실 속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갤러리·북카페·카페테리아로 꾸며진 로비 공간, 자연과 더불어 뛰노는 운동장, 창의력을 자극하는 실내 놀이터 등 전남 학교들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교육추진단장은 “학교 공간혁신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이끄는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며 “교육과정과 연결된 삶, 배움이 공존하는 전남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해남 북일·북평초, 다문화페스티벌 개최



해남군 북일초등학교·북평초등학교는 지난 7일 다문화 이해 주관을 맞이하여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북일초와 북평초가 공동교육과정 통해 함께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 체험 및 전통놀이 체험 12개 부스와 마들렌, 이모모찌 등 다른 나라의 먹거리 체험부스 5개, 총 17개 부스에서 행사가 진

행되었다.

한 학생은 “책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다른 나라의 놀이를 해보니 다른 나라의 친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다른 나라는 우리와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을용 북일초등학교 교장은 “다문화 가정 이 많은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상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동교육과정 행사가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백현영 북평초등학교 교장은 “작은 학교에서 행사 때 10개가 넘는 부스를 운영하기는 힘든데 두 학교가 맞춰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니 보다 다채롭고 의미있는 행사가 이뤄졌다.”고 말하며 공동교육과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순천대 의생명과학과 박기영 교수 ‘자랑스런 전남인 상’ 수상 영예



국립 순천대는 ‘전남을 잇다,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최근 열린 ‘제27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의생명과학과 박기영 교수가 ‘자랑스런 전남인 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27년째를 맞은 ‘자랑스런 전남인 상’은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도민과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온라인 추천을 받고, 역대 수상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남 미래 산업 발전 기여 공로로 경제 분야 수상자로 선정

2023년도 ‘자랑스런 전남인’으로는 가수 남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등 총 6명이 선정되었으며, 국립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가 전남 바이오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대 박기영 교수는 ▲녹십자 공장 화순 유치(2006)를 통한 사스 극복 및 백신주권 기여 ▲생물의약품산업벨트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선정(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유치 등) ▲전남도 민선7기 지속가능성장전략 ‘블루이코노미’(블루에너지,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블루관광, 블루농수산, 블루시티) 기획 참여와 함께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전남도청 평가담당 등을 역임하였다.

순천대 박기영 교수는 바이오산업이 전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남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과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고흥 나로 우주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한·러 우주 기술협정을 성사시켰으며 또한, 전남의 생태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 순천만 보전 운동 등을 통해 UNESCO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힘써 ‘순천시민의 상’을 수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천대 박기영 교수는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제약 바이오산업, 우주산업, 생태관광산업 등의 추진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과정을 통해 전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전남도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역동성을 갖고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